

이 편지는 지난 2월 1일부터 호주에서 열리는 아시아지역 가금발전계획 세미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고 계신 오봉국교수로 부터의 편지 전문을 그대로 소개한 것이다.

동 세미나에 한국대표로 오봉국교수와 장상익교수가 참석하여 여러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3월 초순경 귀국하리라 한다. <편집자주>

## 시드니에서 온 편지

그간 고국의 양계인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지요.

저는 여러분의 염려지덕으로 무사히 시드니에 도착하여 아시아지역 가금 발전계획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가국은 한국, 태국, 인도, 말레이, 싱가포르, 아프리카, 피지, 오스트랄리아로서 가금업전반에 관한 현대적문제점을 놓고 호주 현황과 토픽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면 참가국대표들이 자기 자기나라의 현실과 연구된 업적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토의하게 되는 형식의 내용입니다.

도착후 1주간 시드니에서 세미나가 있었고 2월 6일~2월 12일까지 약 6일간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시에서 호주와 뉴질랜드가 중심이 되는 세미나가 개최되었는데 참가인원은 약 500명, 참가국은 19개국인데 학자 및 업계에서 참가하였습니다.

본 학회는 세계가금학회 호주 및 뉴질랜드 지부가 주최하는 것인데 본 회의에서는 세계가금학회장으로 있는 스페인대학의 카스텔로 교수가 대회의 귀빈으로 참석하여 개회축사를 하였고, 뉴질랜드 농림부장관이 베푸는 환영파티와 오클랜드의 시장이 베푸는 파티, 그리고 대회 회장이 베푸는 파티등이 있었습니다.

학회의 주제는 마력병에 관한 최근의 연구와 예방 및 대책등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있고 기타 영양, 육종, 생산물의 판매와 가공 등에 관한 논문 등이었는데 참고가 될만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세계가금학회 회장을 모신 자리에서 호주, 뉴질랜드, 한국에서는 제가 나가서 발의하여 태평양지역 세계가금학회 지역 지부를 결성하기로 협의하고 태평양지역대표로서 그 자리에 온 각국 사람중에서 한사람씩 참석시켜 지부(지역)를 결성하기로 협의한 사실과 이것이 결성되면 매 4년마다 열리는 세계대회뿐 아니라 2~3년에 1회씩 각국이 번갈아가면서 태평양지역회의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제가 현재 한국지부 회장으로 있는 관계로 세계가금학회 회장에게 지부 승인을 금년 1월에 해주어서 고맙다는 이야기와 아울러 한국을 정식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국 양계에 참고가 될 여러가지 자료를 얻어가지고 갈까 하오며 특히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Egg Marketing Board에 대한 법률과 실행사업에 대한 정부간행물을 얻어가지고 갈까 합니다.

회의는 앞으로 1주일만 시드니에서 다음 1주일만 멜보른에서 가지며 오는 길에 일본에 들러서 일본의 가금계를 보고 올 작정입니다.

2월 13일 일요일 오 봉 국 배